



(녹) 연중 제 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2024년 1월 21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성 이윤일 요한 한인천주교회**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http://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 미사 시간

-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 평일미사: 수, 금 오후 8시

◆ 공소 미사

-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오후 7시)
-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오후 5시)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30분

◆ 봉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

◆ 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704.531.8417

◆ 본당신부

이진희 사도요한  
Rev. Jinhee Lee  
1227jeanlee@gmail.com

◆ 사목회장

박봉철 니콜라스  
Bong6570@gmail.com  
704.840.4106

◆ 사무실

stjohnleecharlotte@gmail.com  
704.531.8417

◆ 주소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 미사 전례

• 성가

입당 22 봉헌 215 성체 174, 175 파견 68

• 제 1독서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3,1-5.10

• 화답송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 제 2독서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7,29-3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알렐루야.

•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4-20



Calling of the first Apostles by Domenico Ghirlandaio



## 성 이윤일 요한 성인

성 윤일(尹一) 이제현(李齊賢) 요한은 충청도 내포지역의 홍주에서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중인(中人) 집안에서 태어났다. 성인이 태어날 당시 시작된 을해박해(1815년)로 경상도 지역에서는 많은 이들이 잡혔고 그중에 몇 명은 경상감영에서 옥사하였다. 대구지역 박해 시작과 더불어 성인은 탄생하신 것이다. 성인의 부친 대(代)에서부터 천주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성인의 가족들은 신앙과 용기로 항상 빛났던 사람들이었다. 성인의 아들 시몬은 아버지보다 앞서 1866년 1월 27일(음력 1865년 12월 11일)에 예천 건학에 사는 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함께 체포되어 공주에서 치명하였다.

성인은 키가 큰데다가 길고도 술이 많은 수염까지 기르고 있어 위풍이 당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성인의 성품은 순량하여 남을 꾸짖거나 탓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화평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한 번도 성내는 일이 없었던 성인은 부친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동네 외인들이 그를 위하여 효자문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할 정도였다.

성인은 고향이었던 홍주를 떠나 상주 갈골에 살다가 부친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자, 성인의 처가 집 식구들(순교자 박사의 후손)이 많이 살던 문경 호항리(여우목)로 이사를 갔다. 여우목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성인은 온후한 성품과 독실한 신앙으로 수계 생활도 열심히 하였다. 성인은 그곳에서 공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외교인들을 권면하여 천주교회에 입교시켰고 신자들을 잘 이끌었다.

1866년 11월 18일(음력 10월 12일) 문경 포졸들이 여우목으로 들이닥쳤다. 포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올 때가 온 것이라 각오한 바 있어 도망하지 않고 태연히 그들을 맞아들였다. 포졸들이 “이 마을의 대표자가 누구며, 천주교를 믿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자 성인은 선뜻 나서며 “바로 나요.”하며 잠잠하게 말하였다. 포졸들이 와서 성인의 손을 묶자, 성인은 침착하게 “이렇게 아니하여도 나 달아날 사람이 아니다. 수갑을 늦추어 달라.”하였다. 그리고 성인의 여덟 식구와 동네 교우들을 합쳐 약 30여 명이 문경 야문에 갇혔다. 당시 문경 현감은 신자들을 잡지 아니한 죄로 면직이 되어 현감 자리는 공석 중이었다. 현감이 없자 포졸들이 성인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였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세간은 다 빼앗겼다. 문경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상주 진영으로 압송되어 갔다. 성인이 상주 진영에 잡혀 있을 때 잡혀 온 이들은 약 70여 명이 되었다. 그 중에서 약 20여 명이상이 치명하였다.

이미지상주 진영에서 성인은 큰 칼을 쓰고 차꼬를 채인 상태로 한두어 달 간혀 있으면서 문목을 받았다. 성인이 상주 감영에 있을 때

원(牧使) 앞에 3차례 문목을 받는다. 원이 “교우들이 어디에 있느냐?” 묻자 “교우들은 여기 들어 온 사람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지금도 성교를 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아니 할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한다. 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네가 회장이니, 네만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할 것이다.” 포졸들에게 큰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에 성인의 두 살 난 손녀가 죽기도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인은 교우들 중에서 마음이 변하는 자가 있으면 열심히 권면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고, 성인의 지도로 함께 옥중에서 아침저녁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였고, 항상 웃으면서 즐거워하였다.

상주감영에서는 끌고 온 신자들을 세 편으로 갈라놓는다. 빈곤한 사람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처럼 풀어 줄 사람,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죽어야 될 사람, 성인과 한실 공소 회장 김예기 형제처럼 사학 괴수라 하여 따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나누었다. 이 때 성인의 아들 이의서 마티아와 큰 며느리 박 아녜스와 모친과 누이가 풀려 나온다. 그러다가 성인이 대구로 참수 당하려 갈 때 자손들을 불러 이렇게 훈계한다. “나는 이제 치명하러 가니 너희는 가서 열심히 수계하다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치명하는 장소에는 따라오지도 말고 치명하는 장면은 보지도 말라고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성인이 걱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다시 신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일성록’ 고종 병인년 11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지금 경상 감사 이삼현의 장계를 보니, ‘문경 고을에서 잡힌 사학 무리 중에 이제현, 김예기, 김인기 세 명은 사학에 매우 깊게 빠진 자들이니 해당되는 울을 시행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많이 모은 뒤 효수(梟首)하여 모든 사람들을 경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학 무리들을 먼저 목 베고 후에 장계함이 일찍이 행한 일이 있은즉 이후로는 굳이 품처하지 말고 해당되는 울로써 형벌을 행한 후에 장계하여 드릴 것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의정부에서 왕께 아뢰니 왕이 윤허하였다.

이미지상주에서 경상감영으로 끌려온 지 3일 째 되는 날, 1867년 1월 21일(음력 1866년 12월 16일)에 각각 그 날 음식상을 한 상씩 받았다. 그러자 김회장 형제 두 사람은 먹지 않고 울었다. 그러자 성인이 “천주가 먹으라 하신 음식을 먹지 않고 울긴 무슨 연고이냐?”며 권면하였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었다고 한다. 성인과 김예기, 김인기 형제는 영장이 먼저 나와 앉아 있던 관덕당 앞으로 묶인 채 끌려 나왔다. 사형 터에는 막대기 넷이 땅에 박혀 있었다. 포졸들이 묶인 것을 풀어 주었고 첫 차례로 성인이 죽을 때가 되자 성인은 자기 주머니에서 엽전 닷 냥을 자신에게 쓸데없는 것이라며 회광이에게 주면서 “여보게 이것 받아 주게. 내가 죽는 마당에 이것을 품속에 넣은 채 죽겠는가? 서승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 없네. 그러니 나를 위해 수고하는 자네들에게 주는 게니 받아주게. 자네들이나 나나 고생하지 않기 위해 한 칼 한번에 내 목을 잘라주게.”고 하였다.

(4페이지에 계속)

2024년 본당 사목표어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미사 및 성시간에 적극 참여
2. 본당 행사와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
3. 제단체 활성화

#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본당 신부님 휴가 및 손님 신부님  
본당 신부님께서 휴가를 가시는 동안 볼리비아에서 선교하시는 김건호 그레고리오 신부님께서 대신 미사를 집전 해 주십니다.  
• 기간 : 1월 15일 (월)~ 2월 10일 (토)
2. 김건호 그레고리오 신부님 특강 안내  
• 일시 : 1월 21일 (일) 미사중  
• 주제 : 순교자들의 선교
3. 구정 미사 안내  
2월 4일 주일미사는 구정 합동 위령미사로 바칩니다.
4. 구정 행사 안내  
• 미사후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부님과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립니다.  
• 식사 후 팀별 율놀이가 있습니다. 각구역 구역장들과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본당 후보성인 축일  
1월 21일은 본당 후보성인 성 이윤일 요한 성인 축일입니다. 성인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6. 2차헌금 안내  
• 합동선교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일시 : 1월 21일 (일)

7. 볼리비아 선교 후원 안내  
• 볼리비아 선교 후원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일시 : 1월 28일 (일)
8. 재무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년 Contribution(TAX) Letter는 1월 14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최정미 베로니카
9. 꾸리아 모임 안내  
• 일시 : 1월 21일 (일) 미사후 • 장소 : 믿음교실
10. 2024 꽃, 초 봉헌 안내  
매 주일마다 봉헌할 2024년도 꽃봉헌과 일년 동안 쓸 초(제대초, 부활초, 대림초, 세례초, 등 각종 미사에 필요한 초)를 봉헌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계획서를 붙여 놓았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 무료 코비드 테스트기 신청  
다시 코비드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 무료로 코비드 테스트기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나 옆의 QR코드로 신청하세요. 가정당 2번씩 신청 가능합니다.  
<https://special.usps.com/testkits>



우리들의 정성 (12월 31일 미사)			
주일 헌금	\$ 993.00	DSA	\$ 1,970.00
교무금	\$ 2,120.00	감사헌금	\$ 1,500.00
건축 헌금	\$ 530.00	꽃봉헌	\$ 100.00
광고비 입금	\$ 100.00	떡국 도네이션	\$ 500.00
		<b>총액</b>	<b>\$ 7,813.00</b>

- **교무금** : 한금자, 손태성, 유한석, 박봉철, 박한식, 이인순, 임정미, 한은경, 이현우, 차용현, 곽정미, 김정환, 김명희, 황도린, 구경태, 최순길, 길세웅, 김진호, 한철교
- **DSA** : 박동환, 손태성, 김중섭, 박한식, 박정례, 한철교, 곽정미, 길세웅, 장상원, 김진호 • **꽃 봉헌** : 박한식
- **감사 헌금** : 박익삼, 박한식 • **광고비** : 홍콩 베이커리
- **떡국 도네이션** : 박익삼

연중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미사 참례자 수 • 1월 14일 : 119명		연 미사
생 미사	병중에 계신분	이재희 베네딕도 신부님 장철호 차리 지복순 데레사 신진규 프로렌시오 배순주 유스티나 김천수 안드레아
장경선 헬레나 박재우 야고보	박은수 라우렌시오 최철희 비오	

전례	구역/일시	전례담당
연중 제3 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6구역 1월 21일(일) 10:30 am	• 해 설: 길세웅 • 독 서: 김대호, 유한석 • 봉 헌: 이상수, 이현영
연중 제4 주일 해의 원조 주일	학생미사 1월 28일(일) 10:30 am	• 해 설: • 독 서: • 봉 헌: • 안 내:

그 후 희광이가 성인을 엮드리라고 하면서 손으로 치자, 성인은 엮드렸다가 다시 일어나 성호를 긋고는 스스로 엮드려 나무토막을 목에 끼고, 사지를 각각 잡아매라 하였다. 이렇게 성인은 관덕당 형장에서 장날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수당하여 순교하였다. 당시 성인의 나이는 52세였다.

성인의 유해는 이 토마스에 의해 처음에는 이곳 관덕당 형장 근처에 임시로 묻혔다. 성인의 머리를 따로 효수하지 않아서 몸과 함께 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약 두 달 후(음력 2월) 성인의 아들 마티아와 마티아의 형과 외숙부와 이 토마스가 와서 봉분을 크게 만들었다. 2년 후 후손들에 의해서 대구 비산동 날뿔 뒷산으로 이장되었다. 그러다가 그 후손들이 경기도 용인군 묵리(墨里 = 먹방이 = 먹방이 = 묵방이)로 이사를 가서 1912년에 그곳으로 이장을 했다. 이 미지그 후 다시 1976년 6월 24일 미리내 성지의 무명 순교자 묘역에 이장했다. 1985년 대구교구 신자들이 미리내 성지 순례를 할 때 해설자에 의해서 무명 순교자 묘역에 안치된 18위 중 한 분이 성인이라는 것을 듣고, 교회사연구소 최석우 신부님이 조사 검증하고

확인하였다. 성인의 묘소가 확임 됨에 따라 대구대교구 이문희 대주교와 수원교구장인 김남수 주교, 미리내 성지 정행만 신부의 합의에 의해서 대구대교구로 이장하게 되었다. 대구로 이장된 성인의 유해는 1987년 1월 21일 대구대교구청 구내 성모당으로 안치했었고, 대구대교구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는 이날 성인을 대구대교구 제2주보로 모실 것을 반포하셨다. 그러다가 성인의 유해는 1991년 1월 20일(일)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의 주례로 관덕정순교기념관 성당 제대에 봉안하였다.

한국의 병인 순교자 24위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김수환 대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1968년 10월 6일 시복될 때, 성인도 복자가 되었다. 그 때 교황은 바오로 6세였다. 이후 성인은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여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 시성(諡聖)되었다. 성인은 우리나라 103위 성인 중 가장 끝에 소개되어 있는 분이다.

성인의 일대기는 관덕정 순교 기념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http://www.daegusaint.org/p501/1690>

**YOUR AD HERE**   
**Call: 704-531-8417**

**YOUR AD HERE**   
**Call: 704-531-8417**

[www.supergmart.com](http://www.supergmart.com) 신선한 야채, 과일, 생선, 육류, 다양한 인터내셔널 식품  
  
**Largest selection of Fine International Food**  
**CHARLOTTE (980) 321-4048**  
 7323 E. Independence Blvd. Charlotte, NC 28227  
**PINEVILLE (980) 999-6487**  
 10500 Centrum Parkway, Pineville, NC 28134

**Charlotte Medical Center Family Medicine**  
**샬롯 메디칼 센터(가정의학과)**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치료, 갑상선질환, 소화기질환, 알러지, 호흡기질환, 예방 접종, 종합 검진, 혈액 검사, 각종 신체 검사  
**(980) 228-9217 한국어 상담 및 예약**  
 10340 Park Rd. Suite A Charlotte, NC 28210

  
**Green Olive Realty**  
**황정선 올리비아**  
 공인중개사 / REALTOR®  
**(704) 557-6942**  
**GreenOliveRealty@gmail.com**

**Dragon Champion 태권도**  
 13024 Eastfield Rd. #A-400 Huntersville, NC 28078  
**704-992-1955**  
**Han's US 태권도**  
 6225 Blakeney Park Dr. #100 A Charlotte NC 28227  
**704-752-9400**

**데이빗리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사업체 매매, 투자용  
**이근모 베네딕토 (704) 408-9947**  
**Email: dlee4989@gmail.com**

  
**refrigerator, Electrical, Heating/AC**  
 일반 A/C & Heater, Hot Water Tank 설치 및 수리  
**최우식 (704) 771-8507 최베로니카 (704) 771-0785**

  
 공인중개사/REALTOR®  
**박나연 올리비아**  
 부동산에 관한 어떤문의도 편하게 전화 주세요.  
**Eunice Park • 704-999-5448**  
**eunicep.cltrealtor@gmail.com**

**Sam Sung Ins.**  
**삼성 종합 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오바마 케어 상담 및 가입  
**대표: 심위성 (704) 537-3722**  
 4801 E. Independence Blvd Suite 615 Charlotte, NC 28212

**홍콩 베이커리 HONG KONG BAKERY**  
**스페셜 케익 주문 · 생크림 케익 · 한국스타일 빵**  
**(980) 321-7283**  
 7323 E Independence Blvd, Charlotte, NC 28227 (Super G-Mart)

  
 You're in good hands.  
 Exclusive Agent  
**박종호 /Chip Park**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체 보험  
**Cell:(704)737-7203 Office:(704)849-7295**  
**Email: chonghopark@allstate.com**  
 10550 Independence Pointe Pkwy. Suite 201 Matthews, NC 28105